

‘일제 첫 여성 의병 양방매 선생’ 기념사업 편다



1984년 처음으로 남편 강무경의 묘를 찾은 양방매 선생. (금정면 제공)

호남 의병장 강무경 부인 영암 출신...수많은 전투 참여 영암학회 등 민간단체 중심 추진

영암 출신 ‘일제강점기 첫 여성 의병 양방매(1890-1986) 선생’의 삶을 조명하는 기념사업이 추진된다. 기념사업은 영암학회(회장 전갑홍)와 영암문화원, 양달사현창사업회 등 지역사회의 순수 민간단체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최근 양방매 선생이 태어난 곳으로 알려진 금정면 청룡리 분토동 마을과 선생이 사망하기 전까지 살았다는 금정면 남송리 집터를 찾았다. 양방매 선생은 호남지역에서 활동한 의병장 중

한 사람인 강무경(1878-1910)의 부인으로 남편을 따라 의병이 되어 항일전에 나섰다. 양방매 선생은 1908년 가을 왜군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몸으로 집으로 피신해 온 강무경을 치료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됐다. 이듬해 3월부터는 심남일 의병장의 선봉장인 남편을 따라 금정, 장흥, 화순, 강진 등 수많은 전투에 참가하기도 했다. 1909년 9월부터 일제가 이른바 남한대토벌작전을 벌여 호남의병에 대한 탄압을 가해오자, 10월9일 화순 풍치의 동굴에 숨어있던 심남일 의병장, 남편 강무경과 함께 체포됐다. 양방매 선생은 1910년 10월4일 심남일과 강무경이 대구에서 사형을 당한 뒤 나이가 어린 여성이라는 이유로 풀려났다. 남편을 먼저 보낸 양방매 선생은 70여 년을 금정에서 숨어 살다 1986년 9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

났다. 1995년에 국립현충원에 남편과 합장됐으며, 2005년에는 건국포장을 받았다. 금정면 출신 시인 김오준 선생은 “양방매 의병을 비롯한 금정면 출신의 한말의병들을 안내하는 변변찮은 안내판 하나 없이 지금까지 방치돼 왔다”면서 “지금이라도 역사를 바로알기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념사업은 민간단체 중심으로 추진위 구성과 관련자료 수집, 서명운동 등을 통해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영주 금정면장은 “그 동안 선생에 대한 조명은 구체화되지 못했다”면서 “지역의 소중한 역사적 가치를 공유 등을 통해 한말 의병사를 정리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목포시, 사회적기업센터 유치 연 2억씩 5년간 운영비 지원

목포시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유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목포시에 따르면 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함께 주관해 공모한 사업으로, 매년 입주기업을 모집해 최대 2년까지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교육, 멘토링,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목포역 인근의 KT빌딩에 입주할 예정인 센터에는 20개 기업의 입주공간과 협업 사무실을 비롯해 회의실, 휴게공간 등이 들어서며 매년 2억2000만원의 운영비가 5년간 국비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시는 사회적기업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최근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컨설팅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18개 기업을 대상으로 노무사, 회계사 등 해당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사회적기업 실무, 인사·노무, 세무·회계, 사회적가치평가 지표 등의 등 총 4개 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현업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기업 대표가 다년간의 경험을 녹여낸 실무 중심의 교육과 기업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줘 호응이 높았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식이섬유 풍부한 해남 고구마, 외국인 입맛 사로잡다

해남고구마협동조합, 홍콩·싱가포르 40여t 수출 선적 행사

당도가 높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땅끝 해남의 고구마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외국인의 입맛을 유혹한다. 해남군은 지난 18일 화산면 해남고구마협동조합에서 홍콩으로 수출되는 해남고구마 선적행사를 가졌다. 해남에서 생산되는 고구마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산 고구마에 비해 맛과 당도가 뛰어나고 품질이 우수해 현지인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 상품성이 우수해 kg당 1만5000원 가량의 높은 가격에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다. 군은 지난해 유럽과 동남아 등 4개 국에 80여t(3억원)의 고구마와 고구마 가공품을 수출했다. 올해도 현재까지 싱가포르와 홍콩 등 2개 국에 40여t(1억원)을 수출한데 이어 향후 60여t(3억

원)을 추가로 수출할 계획이다. 군은 고구마 수출확대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고품질 생산 기술지도와 함께 바이러스 무균묘 보급, 각종 수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화산농협에서는 고품질 생산 및 관리를 맡고, 해남고구마협동조합에서는 수출 증대를 위한 판로개척과 가공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전국 최고의 위상을 인정받고 있는 해남고구마의 품질과 유통, 가공 등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다시 한번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수출 확대로 농가 소득향상은 물론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해남고구마의 명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고구마협동조합 등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동남아 수출 선적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영암군, 카드형 상품권 발행 조폐공사와 ‘사랑카드’ 협약



영암군이 종이형 지역상품권에 이어 카드형 상품권인 ‘영암사랑카드’를 선보인다. 영암군은 지난 17일 전동평 군수와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인 ‘영암사랑카드’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카드 상품권이 도입되면 판매점 방문 없이 구입과 결제가 가능하고 상품권 소지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에서 구입과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젊은층의 상품권 이용 활성화는 물론 종이상품권 제작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효율적이고 건전한 상품권 유통이 기대된다. 영암사랑카드는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이용자는 카드사 금융기관에서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앱(착·CHAK)을 통해서도 카드 발급과 충전이 가능하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무안군, 복지문화국·경제건설국·사업소 3곳 폐지

신도시지원단 신설·보건소 4급 승급 등 조직개편...조례안 입법예고

무안군이 신도시 행정수요와 코로나19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재배치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무안군에 따르면 군은 홈페이지에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20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조직개편안은 기존 복지문화국과 경제건설국 등 2개 국과 사업소 3곳을 폐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전체 무안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남악과 오동지구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수 직속으로 신도시지원단을 신설한다. 신도시지원단 단장은 4-5급이 맡고 도시행정과 도시관리, 복지지원, 통합보건, 교통관리 등 7개 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대응 등 공공의 서비스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소장 직급을 4급으로 올리고 2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행정과에는 감염병대응팀 신설과 함께 기존 보건행정, 위생, 감염관리, 의약팀이 소속되고, 건강증진과는 건강진진, 방문보건, 정신건강, 치매안심팀으로 꾸려진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와 무안생태갯벌사업소를 제외한 3개 사업소가 폐지된다.

관광문화과는 문화체육과와 관광과로 분리된다. 체육시설사업소는 문화체육과로 이관되고, 신도시사업소는 신설되는 신도시지원단으로 업무가 옮겨간다. 화산백련지사업소도 폐지돼 관광과에서 업무를 흡수한다. 미래전략과는 미래성장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청년AI, 일자리 팀이 보강된다. 개편안은 오는 6월1일부터 열리는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업무를 국 보다는 과 위주로 재배치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측면이 있다”면서 “전체적으로는 4급과 5급의 자릿수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